# 진보진영 4연승 촛불승리의 완성…검찰개혁 등 탄력

## 민주당 압승 배경과 전망

### 광주·전남 최고 득표율로

### 중간평가 선거 압승 이끌어

### 개혁 발목·막말 야당 심판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압승은 '촛불혁명'을 이끌어 낸 유권자들의 '예고된 승리'이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에 동력을 실어주어야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야권 심판론'과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 기간 동안 막말을 이어온 '보수 심판'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통해 '제3 정당'에 힘을 실었던 광주·전남·북 유권자들도 민주당을 다시 선택하면서 '민주 진영 정권 재창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보탰다.

15일 4·15 총선 개표 결과 민주당은 압승을 기록하며 정권 재창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는 한국 정치사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 1988년 이래 집권 중반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여당의 승리가 드물었다. 집권 중반 진행된 총선은 그동안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강해 진보·보수 진영이 늘 힘을 쓰지 못했다.

1988년 이후 8번의 총선에서 집권당이 단독 과반 승리를 한 경우도 3번뿐이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후폭풍이 불었던 총선, 2008년 이명박 당선 직후 총선, 2012년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 총선에서 각각 승리했지만 결과는 아슬아슬했다. 이번 총선처럼 압도적으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도 그동안 드물었다.

또 지난 1988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특정 진영이 4차례 연속 이긴 기록은 처음이다. 보수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이겼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졌다.

진보진영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첫 4연승'을 기록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그동안의 선거 기록을 갈아치우는 총선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각종 법안·예산 처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대북정책, 탈원전 정책 등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강했던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앞세워 수년 동안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해왔던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조직력이 탄탄해 당락을 장담할 수 없는 격전지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부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던 신진 정치인이 다수 포진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민은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를 주도했다는 기록도 남겼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4.75%, 광주 32.18%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해찬 "무거운 책임감…코로나 전쟁·경제위기 대응에 혼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21대 총선 결과와 관련,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당 개표상황실에 방문해 "아직 투표 최종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21대 국회는 지금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국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 경제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민생당 0석 전망…원외정당 전락 위기

원내 3당이자 교섭단체인 민생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당선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의 1대1 구도로 치러지면서 '제3정당'이 들어설 공간 자체가 줄어든데다, 당내 계파간 갈등과 공천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민생당은 지역구 후보를 낸 58곳 중 단 한곳에서도 당선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도 0~3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분석됐다. 당 소속 현역 의원만 20명에 달하는 민생당이 순식간에 원외정당으로 내몰릴 처지가 된 것이다.

민생당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총선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흐른데다, '거대양당'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양당제'로 회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생당은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3당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계파간 갈등을 거듭하면서 지지율을 잃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기자들과 만나 "개표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볼 수 있겠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크게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정치가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안정·4기 민주정권 창출 열망 '싹쓸이 지지'

### 민주당 압승 몰아준 호남민심

### 변화 공감대, 세력·세대교체

### 당권·대권 향배 방향타 작용

4·15 총선에서 나타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지역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와 4기 민주정부 창출에 대한 의지로 압축된다.

민주당 바람에 맞서 막판까지 '능력과 인물을 보고 선택해달라'는 호남 중진들과 야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애타는 호소는 '지역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는 20대 국회에서 정치적 존재감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지역 중진 등 민생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지만 '호남 정치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호남 정치도 과거 및 지역의 틀을 넘어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선택이 작용, 세력 및 세대교체가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민심의 이같은 선택에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 여권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앞서가는 결과를 보이는 등 '민주당 싹쓸이' 흐름이 조기에 나타나기도 했다. 총선에 앞서 변화를 토대로 하는 '민주당 바람'이 이미 지역 민심에 공고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당의 경선 관리 부실과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각종 잡음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진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러한 문재인 정부 지지 흐름은 4기 민주정권 창출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생당이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각종 내홍을 거듭하며 스스로 무너진데다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 등도 막판 민주당 바람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압승을 몰아준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의 향배는 물론 대선 정국 등 4기 민주정부 창출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심장으로 돌아온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당권 주자나 대선 주자로 부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인 호남 정치권도 당내 세력 구도에 좌고우면하기 보다는 호남 민심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 판은 지역 정치권의 변화와 문재인 정부의 안정, 4기 민주정부 창출의 열망이 한데 모여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고 분석된다"며 "호남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과감한 도전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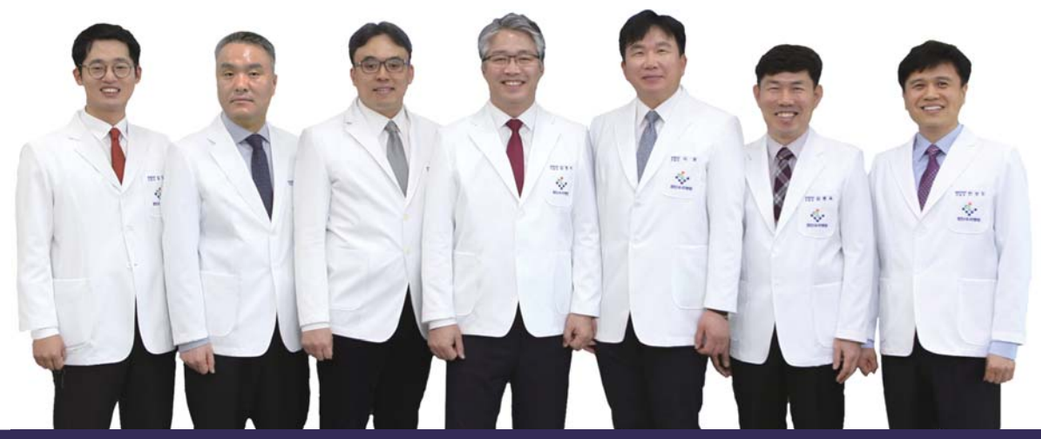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MODERN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